

9월21일(월)/누가복음 13:18-19

**제목: 겨자씨 비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다.(19절) 겨자씨는 본래 정원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야생식물이다. 그래서 자라면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보다 가장 작은 것으로 묘사될 만큼 작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3m까지 자라게 된다. 그래서 이 나무에 온갖 새들이 깃들어 집을 짓고 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점차 급속도로 확장되어서 광대한 제국이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2000년전 이스라엘의 한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도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뻗어가고 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도 전 세계 5대양6대주로 뻗어 가고 있다.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는 매일 매일 증명되어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뻗어가다가 종말 때 거대한 제국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광대한 제국에 전 인류를 초청하셨다. 그래서 장차 우리는 이 제국 안에서는 흑인 형님, 백인 남동생, 빨강머리 누나, 초록 눈동자 여동생을 가족으로 가지게 된다.

9월22일(화)/누가복음 13:20-21

**제목: 누룩의 야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다고 하셨다.(20절) 누룩은 발효된 작은 밀가루 덩어리이다. 이 누룩을 빵을 만들 때마다 조금씩 넣어두면 그것이 발효를 일으켜서 빵을 맛있는 만든다. 우리는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즐겁고 윤택하고 맛있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누룩이 들어와야 한다. 누룩은 대단히 작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죽의 성질 전체를 변화시켜버린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 한 사람의 말씨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의 작은 희생과 봉사가 쓰러져 가는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기도 한다. 우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목단체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쩌면 유일한 성도인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소에서 우리를 누룩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모임에서 누룩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멍청히 살면 안되고 항상 누룩의 야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언젠가는 이 공동체를 즐겁고 윤택하고 맛있게 만들리라”

9월23일(수)/누가복음 13:22-30

**제목: 구원은 투쟁으로 얻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다. “힘써라”는 말은 “싸우라”는 뜻이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즉 싸우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다 있는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 이전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믿음의 전투를 하지 않는 봉사자(26절) 나 행악자(27절)는 그 나라에서 제외된다 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은 결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결과이며 보답이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앙고백만 하면 천국 목적지에 도달한 줄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싸우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셨다. 나는 혹시 예수 믿고 너무 오래 나태하지 않았는가? 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지만 지금은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먼저 된 자에서 나중 된 자로 밀려나지 않았는가?(30절) 하는 문제들을 그동안에 나의 삶 속에서 투쟁이 없었다면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한다.

9월24일(목)/누가복음 13:31-33

**제목: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갑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정보를 주었다.(31절)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갈 뜻이 없으며 자신의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하셨다.(33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33절)는 말 속에는 예루살렘 밖(헤롯의 영토)이 아닌 예루살렘 안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헤롯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일정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내일’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날이고 ‘제3일’은 십자가에서 죽고 사역을 완수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33절) 예수님의 일정은 이렇게 헤롯이 아닌 하나님의 일정대로 착착 진행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되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결혼의 문제 등과 같이 인생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간곡한 처분을 바라는 문제들은 흑 난관에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일정표대로 차질 없이 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염려는 접어도 된다.

9월25일(금)/누가복음13:34-35

### 제목: 예수님의 짝사랑

암탉이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로 모으려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그렇게 모으려 하셨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루살렘은 그의 품을 뛰쳐나갔다.(34절) 그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다. 아니 짝 사랑을 하셨다. 그러나 끝까지 짝사랑만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외면당한 그의 사랑은 이제 분노로 변한다. “너희가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를 찬송하리로다 할찌라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35절) 앞으로 예루살렘이 자기를 찾고 애원하여도 자기는 결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다.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상대에게 주고도 끊임없이 거절당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바로 이런 일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다. 끊임없이 사랑을 거절당했을 때 그 사랑은 마침내 분노로 돌변한다.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기 까지 인간을 아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뒷면에는 분노가 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반드시 한계도 있다. 그 한계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도사리고 있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